

“부처님오신날 모두 성불했으니 행불(行佛) 합시다”

조계종 원로의원, 안성 석남사 회주 정무 스님



정무 스님은 ... 1931년 전북 군산에서 출생했으며, 전북대 수의학과 졸업 후 고등학교 국어교사를 했다. 1958년 은척사에서 전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5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김계 부흥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으며,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용주사·신록사·영일암 주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지도법사를 역임했다. 포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1977년 종정 표창장을 받은 데 이어 2007년 포교대상상을 받았다. 2007년 조계종 원로의원에 선출됐으며, 이듬해 조계종 최고 품계인 대종사를 품수했다. 현재 석남사 회주로 주석하며 출·재가 교육에 심혈을 쏟고 있다.

황사와 비가 연달아 불날 하늘을 찌푸듯하게 하더니, 4월 28일 아침은 유난히 화창하다. 바쁜 일상에서 탈출해 모처럼 고요한 산사에 주석하는 선지식을 찾아나선 탓일까.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에 위치한 석남사 가는 길은 313번 지방도로 주변에 벗벗이 유달리 환하게 피어 나그네를 반긴다. 이윽고 마둔호수를 지나 상촌마을 뒤에서 산사로 이어지는 길이 보인다. 길옆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고, 한껏 푸르름을 자랑하는 봄 풍경이 마음까지 저절로 맑아는듯 하다.

서운산(547m) 자락에 아늑하게 동지를 튼 석남사는 어느 절 보다 편안함을 준다. 쌍둥이 처럼 귀엽게 서 있는 2기의 석탑(향토유적 제19호)과 무척 정갈이 가는 보물 제823호 영산전을 지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대웅전에 들어가 부처님을 참배한다. 대웅전에서 산세를 바라보니, 절이 주변 봉우리에 연꽃처럼 둘러싸여 아늑하게 앉아있는 형상이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석남사 회주이신 정무 큰스님을 친견하기로 한 약속시간이 남아 있어 도량 곳곳을 카메라의 눈으로 들여다 본다. 가지가지 고운 빛깔의 꽃들과 나뭇잎, 연못으로 구성된 아기자기한 도량이 불사에 공들인 큰스님의 정성을 가늠케 한다. 특히 금광루(金光樓)에 쓰여진 한글 주련은 정무 스님이 이 도량에 주석한 포부를 드러내는 듯 하다.

‘서운산 아래/ 금광루에서/ 부처님 광명/ 다시 빛 내리.’

종무소 건물의 주련 역시, 큰스님의 가풍을 단적으로 표현한 글귀다.

‘우주는 한 집안/ 중생은 한 가족/ 서로 원망 말고/ 은혜만 갚아라.’

도량은 아담하지만 절 주인의 뜻은 광대하고 실천행은 깊이가 있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잠시, 약수터에 앉아 돌 웅덩이 안의 개구리 두 마리를 들여다 보며 ‘내가 저 우물 안의 개구리로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으려니, 정무 스님이 공양간에서 주지스님의 부축을 받으며 거사 두 분과 함께 나오신다. 인사를 드리니, 큰스님은 영산전 옆에 우뚝 선 부모은중경탑으로 안내한 후 자라삼야 설명을 하신다.

“이 탑은 세계에서 유일한 탑이며, 옛날에 없던 양식이라 문화재 당국에서 허가를 잘 내주지 않았지. 용주사에서도 그랬지만, 먼저 탑을 세우고 그 취지를 설명한 후 허가를 받았지.”

경로효친(敬老孝親) 사상의 실천이 절실한 말세 중생을 위해 세운 이 새로운 탑이 언젠가는 귀한 문화재가 될 날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큰스님이 머무는 요사채는 소박하다. 손수 우전차(雨前茶)를 우려 주시며 노스님은 선다임미(禪茶一味: 선과 차가 한 맛이다)의 법문을 하신다.

“차는 향과 빛깔과 맛을 함께 음미해야 해. 차의 빛깔은 녹색-황색-적색 순으로 좋지. 차는 혈관에 때 진 것을 씻어내는 작용을 해. 병은 혈관이 막히지 않는 데서 오는데, 차는 혈관을 맑게 해서 중풍과 같은 병을 예방하지. 몸에 탁한 기운을 씻어내듯이 탁한

마음을 씻어내는 게 수행 아니겠나.”

마음은 본래 물과 같다. 물은 주변 상황에 따라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지만, 물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것처럼 사람의 마음 또한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곧 불성(佛性)이다. 물과 같이 변하지 않는 마음의 본성(本性)을 찾는 것이 수행이다. 그러나 수행은 다음 생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전생의 업을 닦기 위한 것도 아니다. 수행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궁극적인 행복(열반)을 체득하기 위함이라 하신다.

부처님오신날을 눈앞에 두고 큰스님을 친견했으니, 부처님 오신 뜻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실(喪失)한 자아를 찾아주려고 오셨지.

서운산 자락 아늑히 동지든

석남사에는 부모은중경탑 있어

경로효친 절실한 말세 위해 세워져

부처님은 우리의 ‘자아’ 찾아주려와

불교의 목적은 ‘나’ 를 찾는 길

불심 아닌 이기심 경계해야

인생은 모르는 것이 당연해

몰라야 화두의심 생기는 법

‘이뵈고’ 참가가 정당가는 지름길

잘 살고 못 사는 것 보다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가. 자기를 찾아라. 이 자기가 뭐냐? 이 뵈고?”

정무 스님은 안으로는 ‘이 뵈고?’ 화두를 갖고 살되, 밖으로 그 무엇을 구하고 찾는 것은 틀렸다고 강조한다. 안으로 자성을 찾되 부모와 자녀, 백성을 위해 사는 것이 부처님께서 제시한 진리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놈은 나쁜 놈이며, 그래서 나는 ‘~을 위하여 살자’고 말하지. 이웃과 국가를 위해 살자는 거야. 취미와 오락, 욕망을 좇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불자의 길과는 더욱 멀어지지.”

불교의 목적은 ‘나’ 를 찾는 길인 동시에, 모두를 위한 길이란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마련이다. 수행과 보살행을 더불어 실천하는 것이 불교의 본뜻임을 알면서도 어느새 자기

합리화에 빠진다. 결국엔 불심(佛心)이 아닌 이기심(利己心)에 그달린 삶 아닌가.

“부처님은 80년 세월, 그해 2월 보름까지 걸고 또 걸으셨어. 마지막엔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난야, 수레가 낡았구나. 자리를 깔아라. 이 가짜 육신을 벗어내라.’ 이 육신을 짊어지고 사는 동안이 자기들이여.”

그렇다면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정무 스님은 “모른다!” 이것이 정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모르는 것, 그래서 화두의심이 생기고 ‘이 뵈고?’ 하고 참구하는 것이 정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이다.

“오늘날 정신과학에서는 신타라타 태자처럼 6년 만에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실상(實相)자리에 들어간 경지는 어떤 사람도 이루지 못한다고 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게 있어. 신타라타 태자처럼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지. 신타라타 태자가 부처님 되는 그 순간, 일체중생이 다 성불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행불(行佛)하자, 부처님 행한 대로 따라만 가면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성불하세요’ 라는 인사 보다는 ‘행불하세요’ 라고 말해. 부처님께서 성불한 내용은 팔만대장경에 이미 다 말했잖아. 우리가 그대로 부처님 정법에 따라 살면 되는 거야.”

이 부분에서 오는 법문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 또 무엇을 첨언할 것인가. 그러나 부처님께서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 이라. 모든 중생에게 다 부처의 씨앗이 있다 해도 진짜로 믿는 불자는 많지 않은듯 하다.

‘아,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에게, 저 난폭한 사람에게, 저 형편없는 사람에게, 나같이 나약하고 게으른 사람에게 무슨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거야.’ 라고 늘 사람을 폄하하던 오래된 습관 때문이다. 잘못된 습관으로 병이 생기듯 잘못된 마음의 습관, 고정관념과 선입관이 큰 병통이다.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꾸준히 길들여온 것이기에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예부터 조사 스님들께서 ‘번뇌가 곧 깨달음’ 이라 하였고, ‘한마음 돌리니 삼계가 열반’ 이라고 하셨듯이, 깨달음이란 그래서 의식의 대전환이요 진정한 자기 혁신이 아닐까.

부처님오신날에 꼭 맞는 법문을 주셨으니 화제를 돌려 큰스님의 공부과정을 여쭙었다.

“큰스님께 가장 큰 영향을 준 선지식은 어느 분이십니까?”

“그야 전강 큰스님이시지. 벌써 60년 전 이야기야. 고향인 군산 은척사에서 전강 스님이 주석할 때 받게 되었지. 전강 스님은 판치생모(板齒生毛: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묻자, 조주 선사가 ‘앞 이빨에 털이 났다’고 답한 공안) 화두로 참 자아를 찾으려고 가르치셨어. 참선은 의식집중을 통해 5식(識)-6식-7식-8식을 차례로 투과(透過)할 수 있는 대단한 방법이야. 부처님도 죽음직전에서 우유죽을 드시고 살아나셨듯이, 의식의 죽음과도 같은 제8식인 아뢰야식(阿賴耶識)을 투과하는 것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 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리하여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따뜻하게 배출되기때문에 몸속(체온) 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체협사제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햇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제 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수퍼블랙드스크 B.C.P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 특별한인간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영양 위기 식음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본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원출판사 | 감상특 저음 | 값 5,000원

회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회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김삼목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료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에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옷나무 진액 참옷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옷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옷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꽃에 대한 술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꽃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옷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서로 자기 노릇 잘합시다

이지. 이런 점에서 참선은 '죽음 연습'이라고도 할 만하지."

정무 스님은 전강 스님의 법제자로서 인천 용화사에 주석하는 송담 스님과 절친(切親) 중의 절친이다. 두 분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은적사에서 전강 스님을 처음 뵈었을 때 나는 군산의 야간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막 송담 스님이 10년 묵언(默言)을 마칠 때 었어. 나만 보면 '아~ 이 선생이 빨리 머리를 깎아야 할텐데...' 하시는 거야. 송담 스님, 능파 스님과 그 때 한창 어울려서 경치 구경도 하고 수행도 하며 지냈지. 그뒤 출가를 하게 된 과정도 전생에 하던 일 계속 하는 것이라 절로 절로 이어진 것 같애."

강산이 여섯 번 바뀌는 세월이 흐른 뒤 송담 스님은 한국의 간화선을 대표하는 선지식이 되었고, 정무 스님은 원로의원이자 대중사로서 조계종의 포교 방향을 제시하는 지남(指南)이 되었다. '왕대 밭에서 왕대 난다'는 송담 처럼, 근현대의 대표적인 선승(禪僧)인 전강 스님 문화에서 걸출한 고승들이 배출된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석가모니부처님이 깨달은 날 일체중생이 함께 성불했으니 '날마다 부처님오신날'이건만, 모양과 개념에 집착하는 중생에게는 4월 초파일이란 기념일이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 불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을 여쭙는다.

"스님은 스님 노릇, 신도는 신도 노릇, 부모는 부모 노릇, 자식은 자식 노릇 잘하면 돼. 그러려면 종교가 타락해 성인의 본뜻을 등지고 형식적으로 신앙 하는 것을 자각하고 개선해야 되겠지. 예를 들어, 사람에게 따라 등값을 따로 매긴다면 등장사나 다름 없잖나. 시주돈이나 천도재 비용도 마찬가지야. 나는 중이 되고 난 뒤 '시주 하라' 한 적도 없고, 등값을 매긴 적도 없어. 내가 용주사와 신희사를 비롯해 다섯 군데의 주지를 했지만 불사금으로 힘든 적이 없었어. 돈이 있다면 쓰고 남은 돈으로 불사도 하고 이웃도 도우면 힘든 일이 없지."

정무 스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인생을 사는 이유를 '빛 갠오러 왔다'고 하신다. 빛은 은혜와 원수 두 가지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마치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하나이자 둘이다. 늘 정신 바짝 차리고 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정무 스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 졸업장>이란 저서 뒷표지의 글귀가 더욱 사무친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가장 거룩한가? 없다. 단, 거룩한 삶만 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건강한 사람인가?

바르게 사는 사람. 산삼을 먹는 사람 보다 산삼을 캐는 사람이 건강하다."

큰스님 친견이 끝나들이처럼 흥겨운 하루다. 남쪽에서 저절로 훈풍이 불어오는구나.

글·사진=김성우(비움과소통 대표·논설위원)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연꽃등 아래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대지에 봄비가 한 보지락 내렸다. 이제 저 대지 위에 농부의 손길이 부산해갈 것이다. 이런 농번기가 되면 미랭시(未冷尸)라 하더라도 일손을 거두고자 이랑에 씨를 날거나 아니면 밭두렁이나 논두렁에 앉아 작은 참견이라도 할 것이다. 배주룩이 나온 싹들은 그 푸르름을 더할 것이고 농부들의 흥겨운 메나리는 일손을 한층 재촉할 것이다. 메나리는 아마 어느 농부의 시름도 모두 싹고 허공에 훨훨 날려버리고 말 것이다. 인간의 애환이나 시름 따위를 선별하지 않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허공에게 관용의 미덕을 배운다.

아마 부처님은 저 허공과 같이 중생에게 분별심 없는 자비의 손을 뻗어 내밀었다. 그 위대한 손길, 손끝이 가까워서 느낄 수 있는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왔다.

도심에는 운룡 연등을 밝혀 성인의 탄생을 찬탄하고 있다. 도심에 뒤질새라 심산유곡에도 어김없이 가지가지의 등으로 장엄한 풍경은 극

계를 비유하여 Sakyamuni-sampresita 라고 한다. Sampresita는 '소집하다', '초청하다'라는 뜻으로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초청하고 소집한다'는 말이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음을 비유하여 <법화경>이나 <화엄경> 등에서 곧잘 비유로 들고 있다.

전주 덕진공원 연못에 연꽃이 한창일 때면 찾곤 한다. 기분 좋게 거닐다 보면 그 좋던 기분이 정지되고 만다. 왜 저런 심수를 지닌 사람이 있을까. 담배꽂초를 버릴 곳이 그리 없어서 연잎에 버렸던 말인가. 이런 군상과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호응하고 있다는 현실에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 그 뿐이라. 동전을 품고 있는 잎을 보고 있노라면 평온했던 마음에 이내 구김살이 가고 만다. 아마 실험정신이 강한 사람의 소행일가.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연잎이니 만인이 추구하는 돈마저도 거부하는지 실험해 본 결과인지 모를 일이다. 액체와 쇠붙이의 속성은 영 다른 것이니 제발

인간의 본질은 충고 정도로는 변하지 않아 침묵 통해 반조하고 명상 통해 자아 찾아야

락세계가 여기가 아닐까 할 정도이다.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라면 단연 연꽃이다. 이 연꽃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망우수(忘憂樹)라고 했다. 근심·걱정을 모두 잊는다는 초목이란 말이다. 그들은 연꽃 열매를 먹으면 행복하고 안락하며 황홀경에 빠진다고 하였다.

북방불교에서 연꽃은 원형의 꽃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불경에 나오는 연꽃은 타원형을 한 수련(睡蓮)으로 묘사되고 있다. 고대 인도에서는 이 연꽃을 아주 중요시하며 비취누신 배꼽에서 생겨난 연화 속에 범천(梵天)이 있어서 만물을 창조한다고 했다. 극락세계는 연화세계와 동일한 말이다. 극락을 Sukhavati 라고 한다. Sukh는 '행복해 하다'는 동사에서 Sukha 라는 명사가 되었다. Vati 는 '아미타 부처님이 있는 하늘나라'를 가리킨 말이다.

연꽃은 일반적으로 네 종류를 말한다. 홍련화(padma)·청련화(upala)·적·백련화(kumuda)·백련화(punḍarika)이다. 광명진언 가운데 마니빠드마(manipadma)가 나오는데 마니는 진주, 보석의 뜻이고 빠드마는 홍련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주와 같은 연꽃'이라는 말이다. <묘법연화경>을 Saddharma-puṇḍarika-sūtra 라고 한다. <법화경>에서 연꽃은 백련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이 교화하는 세

그런 무모한 짓은 꼭 사라져야 할 일이다.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는 것만으로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인데 푸르름을 뽐내고 있는 연잎에 왜 담배꽂초란 말인가. 제발 그대의 손을 멈추시오.

인간의 본질은 충고 정도로는 변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침묵하라'고 하였고 '명상하라'고 하였다. 침묵을 통해서 인간 본성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명상을 통해 잠자는 자아를 발견 하라는 것이다. 세상에 초매(超邁)한 재주를 지닌 사람이 몇이나 되랴. 모두 정진에 따라 우등과 열등이 드러나는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세상을 밝혀 비추고 그 빛은 장애됨이 없듯이 우리 삶도 공명정대하길 바라며 세사에 시달려도 연꽃과 같이 물들지 않는 삶을 살고자 발원해 본다. 연꽃등 아래서.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프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 대 칼 라 지 붓 공 사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할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원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 (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문의 : 010-8442-4444 (상담) / 010-3534-8366 (농장)
묘목 재배 농장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176번지

봉축 부처님오신날

국제 정맥선원 대웅전

초파일 법회 안내

77조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78대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 법문

일시: 불기 3038년 5월 10일(음 4월 초파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제 정맥선원
주소: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140 번지
전화: 031)531-8805 / 010-6431-8805
교통: 홈페이지 www.zenparadise.com 참조

국제 정맥선원 www.zenparadise.com